

영향 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

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6. 2. 23.(화) 10:00 (총 17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담당자	과 장 박 종 서 전화번호 070-7850-8335

수도권 3개월 전망(2016년 3월 ~ 5월)

[기 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겠지만, 3월과 4월에는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고, 5월에는 고온 현상을 보일 때도 있겠음

[강수량] 3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고, 4월에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겠으나, 5월에는 평년보다 다소 적은 경향을 보이겠음

- (3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지만,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4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큰 가운데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5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과 함께 일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엘니뇨 전망) 강한 강도의 엘니뇨가 지속되고 있으며, 봄철동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편차 : 2016년 1월 +2.6℃, 2월 7~13일 +2.6℃
 ※ 엘니뇨 정의 :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 3.4 지역 :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 이상으로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의 시작으로 봄

[3개월전망(2016년 3월~5월) 요약]



※ 서울·인천·경기도지역 평년 비슷 범위

	3월	4월	5월
평균기온	±0.5°C	±0.5°C	±0.3°C
강수량	±20%	±15%	±15%

※ 평년기간 : 1981~2010년

※ 강수량 전망의 '평년 비슷' 범위는 평년기간 중 발생한 극값을 제외하고 산출되었습니다.

※확률예보 해석의 기준

확률(낮음(적음) : 비슷 : 높음(많음))	해설
높음(많음) 확률이 50%이상	평년보다 높음(많음)
(20:40:40)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많음)
비슷 확률이 50%이상	평년과 비슷
(40:30:30) (30:40:30) (30:30:40)	
(40:40:20)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적음)
낮음(적음) 확률이 50%이상	평년보다 낮음(적음)

2016년 봄철 전망

목 차

- I. 2015/2016년 겨울철 기상특성
- II. 엘니뇨 전망
- III. 봄철 전망
- IV. 황사 전망
- V. 최근 10년 봄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 VI. 여름철 기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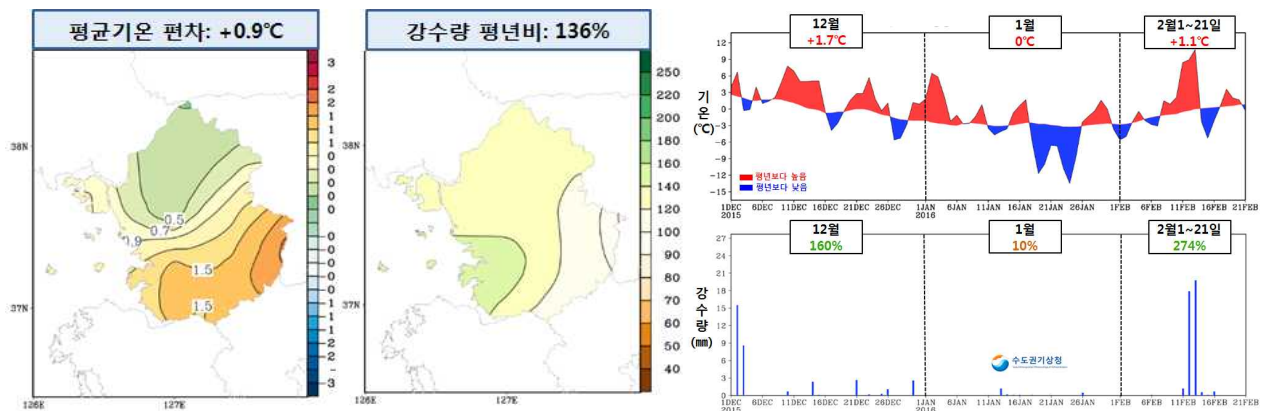
수도권기상청

- 3 -

I. 2015/2016년 겨울철 기상특성

1. 기온과 강수량(2015.12.1.~2016.2.21.)

- 겨울철 평균기온은 -0.3°C 로 평년(-1.2°C)보다 0.9°C 높았음.
 - 12월 평균기온은 1.8°C 로 평년(0.1°C)보다 높았고, 1월에는 -2.8°C 로 평년(-2.8°C)과 같았으며, 2월에는 0.4°C 로 평년(-0.7°C)보다 높았음.
- 겨울철 강수량은 76.6mm 로 평년(56.0mm)대비 **136%**였음.
 - 12월 강수량은 34.0mm 로 평년(20.4mm)보다 많았고, 1월에는 2.2mm 로 평년(20.1mm)과 적었으며, 2월에는 40.4mm 로 평년(14.9mm)보다 많았음.



[그림 1] (좌) 겨울철 평균기온 편차와 강수량 평년비 분포, (우) 일평균기온 편차와 일강수량 시계열(2015.12.1. ~ 2016.2.21.)

- 4 -

2. 겨울철 특이기상

○ 12월: 따뜻하고 평년보다 많았던 강수량

- 양의 북극진동(강한 북극소용돌이 상태)이 우세하여 우리나라로의 한기유입이 약하였으며, 엘니뇨의 영향으로 필리핀 해 부근에 형성된 고기압성 흐름으로 인해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음.

○ 1월: 한 차례 강한 한파

- 1월 들면서 음의 북극진동(약한 북극소용돌이 상태)이 발생하여 대륙고기압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8~25일에는 우랄산맥 동쪽에 형성된 상층기압능의 발달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
 - ※ 24일에 수도권 평균기온이 -13.5°C 로 평년(-3.2°C)보다 10.3°C 낮아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 서울 최저기온은 -18.0°C 로, 2001년(1.15, -18.6°C) 이후 가장 낮았음.
 - ※ 21일에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1.3.)보다 18일 늦고, 평년(1.13.)보다 8일 늦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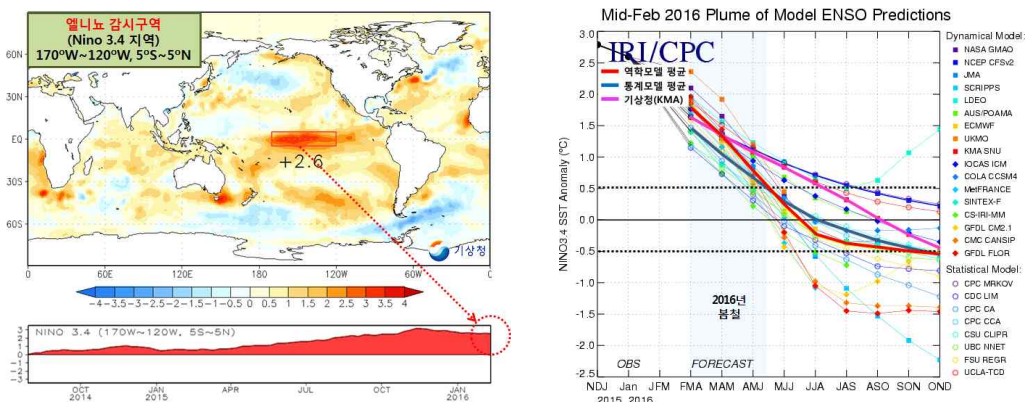
○ 2월: 큰 기온 변화

- 11~13일에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14~15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기온변화가 컸음.
 - ※ 수도권 평균기온 편차: 12일: $+9.2^{\circ}\text{C}$ \Rightarrow 15일: -5.5°C
- 12~13일에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5 -

II. 엘니뇨 전망

- 엘니뇨 감시구역($5^{\circ}\text{S}\sim 5^{\circ}\text{N}$, $170^{\circ}\text{W}\sim 120^{\circ}\text{W}$)의 최근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2.6°C 높은 상태로, 강한 강도의 엘니뇨가 지속되고 있음.
- 현재 강한 강도의 엘니뇨가 봄철 전반까지 지속되겠지만, 이후 약화되면서 올 여름철에 정상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좌) 최근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 편차(2016.2.7.~13.), (우) 세계 각국의 엘니뇨 예측 결과(출처 : I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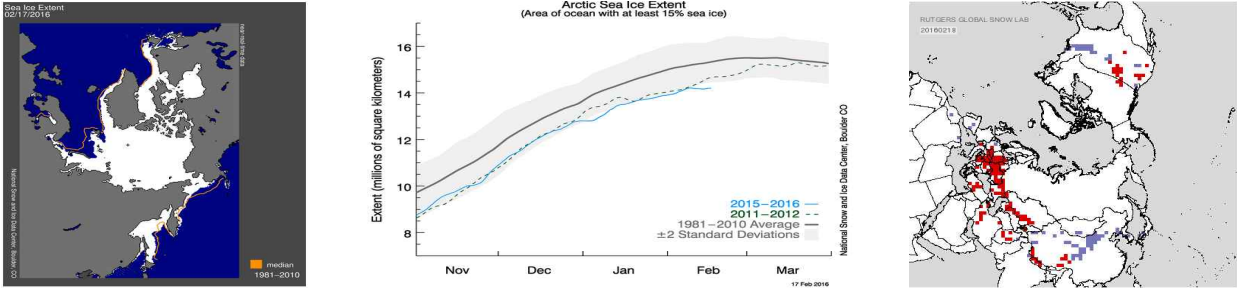
- ※ 최근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편차 현황 : '15.11월 $+3.1^{\circ}\text{C}$, '15.12월 $+2.9^{\circ}\text{C}$, '16.1월 $+2.6^{\circ}\text{C}$, 최근(2월 7~13일) : $+2.6^{\circ}\text{C}$ (OISSTv2)
- ※ 엘니뇨(라니냐) 정의 :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ño3.4 지역 : $5^{\circ}\text{S}\sim 5^{\circ}\text{N}$, $170^{\circ}\text{W}\sim 120^{\circ}\text{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의 편차가 0.4°C 이상(-0.4°C 이하)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 6 -

III. 봄철전망

1. 기후감시 및 분석

- (엘니뇨) 엘니뇨가 약화되는 시기의 봄철에 엘니뇨와 우리나라 기온 및 강수량과의 뚜렷한 관련성이 없어,
 - ⇒ 엘니뇨가 원격상관으로 우리나라 봄철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북극해빙) 지난 해 가을철부터 평년보다 적었던 바렌츠-카라 해의 해빙면적이 유지되고 있어,
 - ⇒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눈덮임) 현재 중국대륙에서의 눈덮임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 ⇒ 강한 대륙고기압이 발달할 가능성은 낮으나, 일시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3] (좌) 최근 북극해빙면적 분포('16.2.20), (중) 북극해빙면적 시계열('15.11.1~'16.2.20), (우) 최근 눈덮임 현황('16.2.20)

- (경향성) 과거 43년(1973~2015년)동안 봄철 기온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봄철 강수량은 뚜렷한 경향성이 없음.

- 7 -

2. 봄철 전망

[기 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경향을 보이겠으나, 3월과 4월에는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고, 5월에는 고온 현상을 보일 때도 있겠음
 [강수량] 3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고, 4월에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겠으나, 5월에는 평년보다 다소 적은 경향을 보이겠음

[표 1] 3개월전망(2016년 3~5월) 요약

	3월	4월	5월
평균 기온	20%	40%	30%
	50%	40%	40%
	30%	40%	50%
강수량	30%	20%	40%
	40%	30%	40%
	30%	50%	20%

기온: 높음(블루), 비슷(회색), 낮음(빨간) 강수량: 적음(노랑), 비슷(회색), 많음(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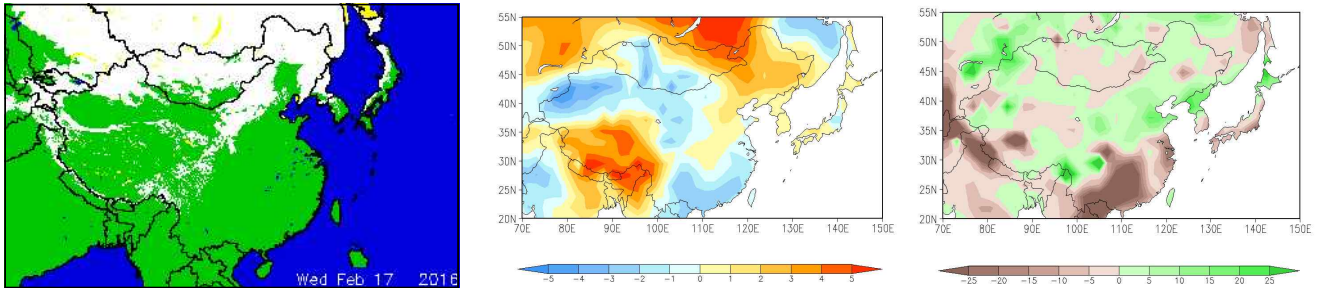
○ 날씨전망

- 3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인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4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큰 가운데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5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과 함께 일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8 -

IV. 황사 전망

- 올 봄철 수도권 지역의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5.6)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일부 주요 황사발원지에 여전히 눈덮임이 존재하고, '저온 건조'한 지역과 '고온 습윤'한 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함.
 -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봄철 전반부에는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다소 높겠음.



[그림 4] (좌) 동아시아 눈덮임(2.17), (중) 평균기온 편차(°C), (우) 강수량 편차(mm) 분포(2016.2.1~16.)

[표 2] 황사일수 수도권 평균값 (단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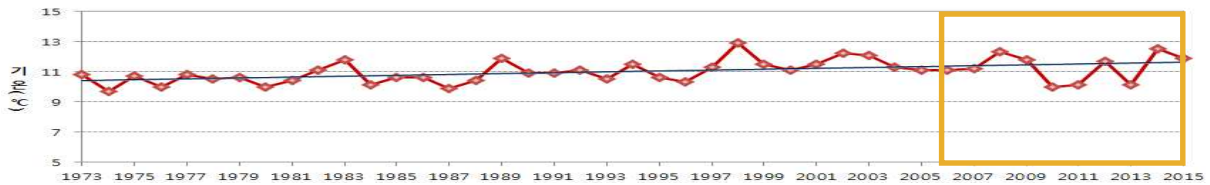
	3월	4월	5월	봄철
1981~2010년 (평년)	1.6	3.0	1.1	5.6
2006~2015년 (최근 10년)	2.5	1.0	1.2	4.7

- 9 -

V. 최근 10년(2006~2015년) 수도권 봄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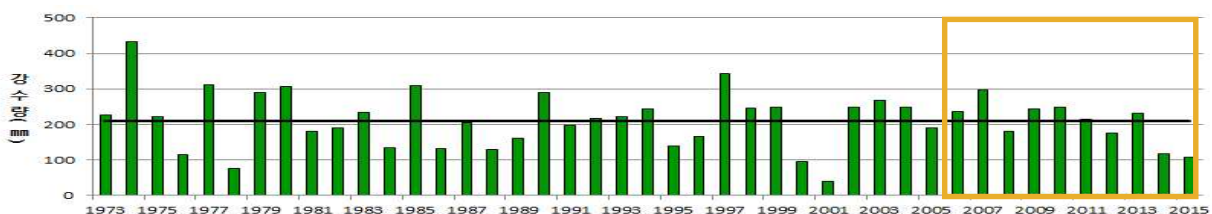
1. 기온과 강수 특성

- 기온
 - 최근 10년 봄철 평균기온은 11.3°C로 평년(11.1°C)과 비슷하였음.



[그림 5] 연도별(1973-2015) 수도권 봄철 평균기온

- 강수량
 - 최근 10년 봄철 강수량은 169.9mm로 평년(238.3mm) 대비 81%를 기록하였음.



[그림 6] 연도별(1973-2015) 수도권 봄철 강수량

- 10 -

[표 3] 최근 10년 수도권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3월	4월	5월
평균기온(평년편차)	°C	5.0(-0.3)	11.5(-0.2)	16.8(-0.5)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C	10.0 / 0.6	17.0 / 6.6	22.2 / 12.2
강수량 / 강수일수	mm / 일	43.89 / 7.0	62.6 / 7.4	103.2 / 8.7
일조시간	시간	202.6	218.2	226.8
일최저기온 0°C 미만 일수	일	13.2	0.9	0.0
황사일수	일	1.6	3.0	1.1

※ 최근 10년 기간 : 2006~2015년

※ 평년기간 : 1981~2010년

※ 일교차

연 중 일교차가 가장 큰 계절은 봄철이며, 특히 4월에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7] 평년(1981-2010) 일교차와 평균기온 일변화(전국 45개 지점)

2. 특이기상 및 영향

○ 저온현상

- (2014년 5월 3~9일)
 -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고, 6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대관령에 눈이 내렸음
 - 감차카반도 부근에서 발달한 상층 기압능의 영향으로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상층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 (대관령에 눈이 가장 늦게 온 날 기준 : 33년만[1981.5.17], 5월에 눈이 온 날 기준 23년만[1991.5.2])
- (2014년 4월 4~6일)
 -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았음 (편차(°C) : 평균기온 -3.2[1위 1996년 -3.4], 평균 최고기온 -4.1[1위 1997년 -4.2])
 - 감차카반도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발달하여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상층 한기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쌀쌀한 날씨가 나타났음
- (2013년 4월)
 -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았음(편차(°C) : 평균 최저기온 -1.6[1위 1996년 -2.1])
 - 상순 후반부터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에 자주 유입되어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었음
 - 개화기였던 배, 복숭아 등에 냉해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1년 3~4월)
 -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낮았음(편차(°C) : 평균 최저기온 -1.1[1위 1996년 -1.5])
 - 찬 대륙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까지 확장하여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었음
 - 과수농가에서는 저온으로 냉해를 입었고, 작물의 수확시기 지연에 따른 생산비용이 상승하였으며, 어민들은 제철어종의 어획량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었음
- (2010년 3~4월)
 -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낮았음(편차(°C) : 평균 최고기온 -2.6)
 -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어 한기 유입이 잦았고, 남쪽으로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면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았음. 특히 일조량의 부족으로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하였음
 - 잦은 강수와 저온으로 농작물의 생육이 부진하였음

○ 고온현상

- (2015년 5월)
 -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났으며, 평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변차(℃) : 평균기온 +1.4)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전반과 중반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후반에는 강한 일사와 함께 중국 북동부지역의 고온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었음
- (2014년 5월 하순)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일부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되었음(변차(℃) : 평균기온 +2.8, 평균 최고기온 +3.5, 평균 최저기온 +2.1) (열대야 발생일 : 제주 27일, 강릉 29일, 31일)
 - 중순부터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낮에는 강한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 (2014년 3월)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1973년 이래 각각 최고 2위, 3위, 1위를 기록하였음(변차(℃) : 평균기온 +1.8[1위 2002년 +2.0], 평균 최고기온 +1.7[1위 2002년 +2.5], 평균 최저기온 +1.6)
 - 중순 후반과 하순에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 (2014년 3월 22~31일)
 - 평균기온, 평균 최고·최저기온 모두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변차(℃) : 평균기온 +4.8, 평균 최고기온 +5.3, 평균 최저기온 +4.3)
 -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과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 (2013년 3월 상순)
 -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으며, 9일에는 3월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음(변차(℃) : 평균기온 +2.3[1위 1998년 +3.2], 평균 최고기온 +4.0[1위 1998년 +4.3])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기온이 높았음
- (2012년 5월)
 -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변차(℃) : 평균 최저기온 +1.5)
 - 고온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음
- (2009년 5월 상순)

- 13 -

-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변차(℃) : 평균 최고기온 +3.7)
-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 기온이 크게 올랐음
- 모기가 대량 번식하여 극성을 부렸음
- (2008년 3월 중순)
 -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 이상 올랐음(변차(℃) : 평균 최고기온 +4.0[1위 2002년 +4.2])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음
 -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여름옷의 판매가 증가하였음

○ 대설

- (2010년 3월 17~18일)
 - 충청도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18일 최심적설(cm) : 천안 15.2, 청주 12.7, 대전 10.1, 서산 9.2, 수원 6.9 등)
 -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해 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 쌓인 눈의 무게로 인해 전신주가 쓰러지고 눈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었으나, 건조한 시기에 강수량이 공급되어 농사에는 도움이 되었음
- (2010년 3월 6~10일)
 - 6~8일에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렸으며, 9~10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최심신적설(cm) : 7일 속초 11.9, 북강릉 11.4, 8일 속초 18.0, 북강릉 16.5, 동해 8.3 등), (최심적설(cm) : 10일 동두천 21.2[관측 이래 3월 극값 1위], 서울 13.5, 원주 11.7, 포항 11.3, 통영 4.1[관측 이래 3월 극값 1위] 등)
 - 6~8일에 북고남저의 형태의 기압배치에서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렸으며, 9~10일은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 눈 무게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시설재배 농가의 피해가 컸고, 과수나무와 소나무 등이 부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 14 -

○ 건조 및 가뭄

- (2009년 4월 상순)
 - 전국 평균 강수량이 1973년 이래 가장 적었음(강수량(mm) : 0.1(평년대비 0%))
 -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음
 -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었으며, 산불 발생이 증가하였음
- (2007년 4월)
 - 전국 평균 강수량이 1973년 이래 4월 강수량이 네 번째로 적었음(강수량(mm) : 35.0(평년대비 45%)[1위 2001년 25.5])
 -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음
 - 댐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산불 등 화재발생이 증가하였음

○ 많은 비

- (2015년 4월)
 - 전국평균 강수일수가 관측 이래 가장 많았으며, 4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한 곳이 있음
(강수일수(일) : 14.2, 일강수량(mm)[4월 극값 3위] : 28일 완도 102.5[1위 2012.4.21. 149.0], 29일 고흥 123.0[1위 1990.4.12. 139.7])
 - 저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전반에는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남해안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중반에는 저기압의 이동속도가 느려 비오는 날이 많았고, 후반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
- (2011년 4월 30일)
 -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4월 극값 1위] : 수원 136.0, 제천 112.5, 충주 101.0, 홍천 94.5 등)
 -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다가와 많은 비가 내렸음
- (2006년 5월 6일)
 -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 : 강화 142.5[5월 극값 1위], 파주 110.5, 진주 139.5, 장흥 114.5, 부안 80.0 등)
 -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음

- 15 -

○ 황사

- (2015년 3월)
 - 1973년 이래 황사가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음(황사일수(일) : 전국 5.5[1위 2001년 9.9], 서울 8.0[2위, 1위 2001년 11.0])
 - 내몽골에서 발원하여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황사가 자주 발생되었음
- (2011년 5월 1~4일)
 - 전국적으로 매우 짙은 황사가 관측되었음(2일 최고농도(시간평균, $\mu\text{g}/\text{m}^3$) : 흑산도 1025, 고산 731 등)
 - 내몽골에서 발원하여 황토고원과 산둥반도를 지나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음
 - 공기청정기의 판매가 증가하였음.
- (2006년 4월 7~9일)
 -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황사가 관측되었음(최고농도(시간평균, $\mu\text{g}/\text{m}^3$) : 8일 백령도 2371, 관악산 2311, 천안 1900, 9일 강화 2034 등)
 -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하여 북서기류를 타고 유입되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황사가 나타났음
 -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휴교하였음

※ 매우 짙은 황사 : 1시간평균 미세먼지농도가 $800\mu\text{g}/\text{m}^3$ 이상일 때 / 짙은 황사 : $400\sim 800\mu\text{g}/\text{m}^3$ 일 때 / 약한 황사 : $400\mu\text{g}/\text{m}^3$ 미만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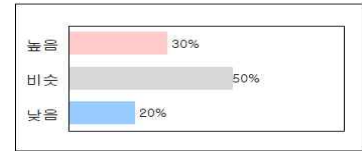
VI. 2016년 여름철 기후전망

-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강한 강도로 지속중인 엘니뇨가 점차 약화되어 올 여름철에는 정상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1. 기온 전망

평년(23.6℃)과 비슷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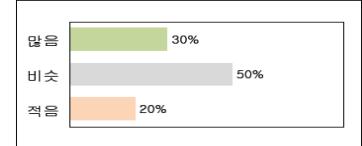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겠으나,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2. 강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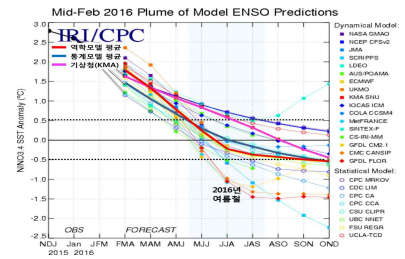
평년(723.2mm)과 비슷하겠음.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으며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3. 엘니뇨 전망

강한 강도로 지속중인 엘니뇨가 점차 약화되어 올 여름철에는 정상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여름철에 대한 3개월 전망(2016년 6월~8월)은 2016년 5월 23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기후전망은 계절에 관한 평균상태를 3분위(낮음/적음, 비슷, 높음/많음)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산출함. 백분율이 33.3% 이상일 경우 해당 단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임.